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0-04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0-04
2020 년 10 월 04 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106633285](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106633285)

kr.theanarchistlibrary.org

2020 년 10 월 04 일

차례

1. [대단하다, 공권력!]	3
2. ['국뽕'은발정유도제같은것이아니다]	3
3. [최소한인민의복지와생존을위해서라도국가가필요하지않 느냐는질문에대한우리의답변]	4
4. [국경분쟁의문제는국경이다]	5

해지배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결정한 전쟁속에서 00 년대생으로 이루어진 사상자명단이 속출하고 있는 것만큼이나 끔찍한 일이 또 있을까.

영역문제에 관한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접근법은 해결이 아닌 악화를 가져온다. 유고슬라비아에서 그러했고 터키에서 그랬으며 수없이 많은,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민족간 분쟁에서 그러했듯이 문제는 어느 쪽의 승리로 끝나건 긍정적인 결과 없이 인종 청소, 강제이주, 소수자 탄압 등의 상처를 남기며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을 남기는 결과로 끝날 뿐이다.

이러한 분쟁의 문제는 국경선이 어떻게 그려져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국경 그 자체가 문제다. 검문소를 세워 민간인의 이동을 막고 철조망을 세워 공동체 간의 교류를 단절시켜 인위적으로 갈라진 양 집단을 이질적인 집단으로 인식시키며 그 철조망을 지키고 확장시키는 것이 자신과 공동체의 이익인양 생각하도록 만드는, 국경 그 자체가 문제다. 우리가 국경 문제의 해답을 찾고자 한다면 그 답은 국경을 없애는 것이다. 철조망을 허물고 사람들이 자유로이 다니도록 하자. 모든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 자유로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다음 모든 개인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집단의 필요에 따라 토지를 점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양 국민 중 모두가 게묵이 분쟁에서 즉각적인 무력 사용 중단을 촉구한다. 분쟁 해결을 위한 것은 각 사람들이 서로 죽이도록 하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류하며 이해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30064552080>

1. [대단하다, 공권력!]

개천절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과 국가 권력의 신성동맹이 결실을 맺었다. 수많은 협박, 압박 속에서 파쇼 세력은 대규모 집회를 일으키는데에 결국 실패했다. 경찰은 광화문을 차벽으로 봉쇄했고, 공포를 통해 인민들의 집회비토 정서를 확대시켰으며, 체포 압박을 통해 파쇼 집회의 규모를 최소화시켰다.

대단하다, 공권력! 당신들은 목표한 바를 이루었다.

우리아나키스트 연대는 이러한 공권력 행사를 통해 파쇼 세력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자체야는 정화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공권력 행사 의 저열한 면모에 집중하고자 한다. 공권력은 집회가 신고되거나 예고된 순간부터 대규모 체포 협박을 벌여왔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당수까지 나서 절대 관용은 없을 것이라 겁박을 주어왔다.

그뿐인가? 국가 권력과 함께 하는 수많은 언론사들과 국가 권력을 대변하는 대변인들 등은 광화문 집회가 열리면 코로나의 확산이 미친 듯이 벌어질 것이라 인민 대중에 공포를 불어넣었다. 그 결과가 지금 이것이다. 파쇼 세력은 국가 권력에 굴복했고, 국가 권력은 승리했다. 대단하다, 공권력.

우리아나키스트 연대는 이제 이러한 공포 전술과 협박 전술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 경고하고자 한다. 이러한 집회 금지와 겁박이 노동자들의 파업과 집회에 적용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오히려 이미 선례가 생겼으니, 국가 권력은 더욱 거리낌 없이 인민의 집단 행동과 결사권을 막아내려 들 것이다. '방역 파시즘' 에 근간한 협박으로 말이다.

우리는 단호히 파쇼 세력을 비토하고 맞섰으며, 맞설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단호하게 국가 권력의 공포 전술과 억압에 저항하고 반대한다. 그대 단 하신 공권력의 횡포는 노동자 인민 대중의 의사 표현을 막을 수는 없고, 앞으로 없을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0910217?sid=102>

2. ['국뽕'은 발정 유도제 같은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라는 발표를 내놓았다. 나는 이 발표가, 코로나-19 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직장에 가지 않는 시간이 늘어났기에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늘어날 거라는 분석 일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국가 관료들의 발상은 상상을 초월했다. 무려, "코로나 19 극복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받

는데이런점이 (우리)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된다면서, K-방역으로 차오른 ‘국뽕’ 덕분에 출산율이 반등한다는 분석이었던 것이다.

언젠가부터, 국가가 출산율 저하를 걱정하기 시작했고, 갖가지 기상천외한 출산 장려 정책/분석을 내놓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가 청년들의 단체 미팅을 주관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K-방역으로 국뽕이 차올랐으니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진심으로 궁급하다. 이들 관료들의 눈에, 인민은 교배 대상인가? 그놈의 국익을 위해, 국가적 생산성 유지를 위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차오르면,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국가를 위해 아이를 낳는 것인가?

분명하게 말한다. 현대 한국의 청년들이 출산을 거부하는 것은, 짝을 만나지 못해서도 아니고, “탈조선”하고 싶어서도 아니다. 방세가 너무 높아 마음편히 섹스할 수 있는 자취방을 구할 수 없어서이고, 하다 못해 모텔을 가려고 해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4 시간을 일해야 대실이나 마할 수 있어서이고, 당장 월 180 만원 (이것도 최저임금보다는 높은데) 으로 아이를 먹여 살릴 수 없어서다. 정말로 출산율을 높이고 싶다면, 값싼 주택을 공급하라.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라. 못하겠으면 (당연히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하는 말인데) 섹스의 영역에서 발을 빼라.

관료들이 인민들을 교배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에, 교배의 영역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판다는 참으로 교배시키기 어려운 생물이다. 인공 교배를 시도해도 안 되고, 심지어 판다 용포르노를 제작하여 상영해도 교배에 실패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로 동물원을 폐쇄하고, 관광객이 없어지자, 세계의 동물원들에서는 판다가 짝짓기를 하고, 자연분만에 성공하는 일이 벌어진다. 인민을 교배시키고 싶다면, 교배 방법이라도 제대로 배워 달라. 먹을 것을 풍족히 주고, 허튼 시도를 하지 않으면, 그 판다조차 출산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

3. [최소한 인민의 복지 생존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변]

필라델피아에서 무주택자, 노숙자들이 공공주택의 제공을 요구하며 시 재개발부지 점거 농성에 돌입한 지 시간이 꽤 지났다. 그리고 지난 주, <필라델피아 주거 행동 > 및 농성대오는 시 정부 및 필라델피아 주택청과의 잡정합의를 도출했다. 주된 내용은, 농성대오에게 긴급 주거 대책을 마련

하고, 50 채의 주택을 공동체가 관리하는 토지 신탁에 위임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공공주택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도 상당히 오래되었다. 공공주택 공급의 달성을 위한 제시된 방법론도 다양했다. 모든 주택의 완전한 몰수와 재분배를 “사회주의적” 해법이라고 내놓는 곳도 있었고, 정당에 들어가서 주거 문제를 내세우며 출마를 하자는 곳도 있었다. 하지만 언제나 공공주택은 정치꾼들의 헛된 공약으로만 그쳐왔고, 기껏해야 청년 장기 임대 주택을 성과라고 받아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의 동지들은 주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냈고, 장기적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냈으며, 그 공공주택 중 일부를 공동체가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이것은 당사 대중의 직접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가 스스로를 아나키스트라고 칭할 때, 우리는 “복지”를 이야기하며, 인민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듣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사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복지”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되묻고 싶다. 지난 십수년간, 국가가 주도한 그 어떤 부동산 복지보다, 지난 한 달, 필라델피아 인민 대중의 직접 행동/직접 투쟁이 만들어 낸 성과가 더 크다. 인민들은, 국가 주도의 복지가 없으면 굶어 죽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투쟁하고,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존재다.

국가에게 말로만 요구하는 “복지”의 강화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혹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복지”가 필요한 대중들이 모두 고통 받은 후에 이루어질 뿐이다. 필라델피아 인민들의 투쟁처럼, 투쟁을 조직하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직접 요구하고, 그것을 쟁취해내자.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길일 것이다.

<https://theintercept.com/2020/09/29/philadelphia-public-housing/>

번역: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106532896>

4. [국경 분쟁의 문제는 국경이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간에 국경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분쟁 지역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으로 역사적으로도 양국 간에 분쟁이 격한 지역이었으며 현재는 아제르바이잔 영토 내에 있는 아르메니아의 월경지이다.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전쟁도 그 저지배층의 구호 아래 피지배층이 희생되는 비극에 불과하다. 회복해야 할 고토니고유하고 정당한 영역이니 하는 무익하고 공허한 개념들을 위